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별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관계

김지선¹, 오지현^{1*}

¹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Relationships of Communication Ability, Self-Esteem, Academic Achievement by Myes-Briggs Type Indicator(MBTI) Personality Type in Nursing Students

Ji-Seon Kim¹, Ji-Hyun Oh^{1*}

¹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Health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수행되었고,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123명의 자료를 SPSS Statistic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MBTI 성격유형은 ISFJ형이 13.8%로 가장 많았으며, MBTI 태도지표는 I형이 31.7%로 가장 많았다. MBTI 태도 지표는 의사소통능력($F=7.163$, $p<.001$), 자아존중감($F=6.316$, $p=.001$), 학업성취도($F=3.556$, $p=.01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r=.262$, $p=.003$), 학업성취도($r=.515$,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ommunication abilit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personality type in nursing students. This study was a cross sectional survey an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23 nursing students by means of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rom June 7 to 18, 2021. ISFJ type was the most common with 13.8% in MBTI personality typ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abilit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by MBTI attitude. The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Key Words Academic achievement, Communication ability, Myers-Briggs Type Indicator, Nursing student, Self-esteem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급변하고 있는 의료 현장에 적응하기 위해 간호사는 다양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1]. 간호사는 급변하는 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대상자의 다양한 간호 문제를 경험하게 되며, 이들이 지닌 복합적인 간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융합적 지식을 갖

추어야 한다[1]. 더욱이, 전례 없는 COVID-19의 대유행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간호사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는 핵심 인력으로 반드시 융합적 전문지식을 갖춘 보건의료 전문가여야 한다[2].

간호사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융합적 지식을 갖춘 역량 있는 간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1]. 이를 위하여 간호대학에서는 학습성과 중심의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시행되도록 노력하

이 논문은 2020년도 광주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20028)

*Corresponding Author : Ji-Hyun Oh(Gwangju Health Univ.)

Email: ohjh@ghu.ac.k

Received November 26, 2021

Revised December 16, 2021

Accepted December 20, 2021

고 있으며, 간호대학생들이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3]. 학업성취도란 ‘학습을 통하여 습득한 능력이나 학업의 결과로 대학 교육의 이념과 목표가 교수 학습 과정을 통하여 구체화 되는 결과’이다[4-6]. 또한 학업성취도는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학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구체화해가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졸업 후 전공에 대한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7]. 따라서 의료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해결이 시급한 COVID-19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융합적 전문지식을 갖춘 간호인력 확보를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는 절실하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에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역량은 의사소통능력이다[8]. 의사소통능력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히 소통하기 위한 그 지식과 활용 능력’을 의미한다[9]. 간호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하는 것에 기반을 둔 전문적 돌봄이기에, 간호사들은 임상 현장에서 보건의료전문직, 행정직 그리고 다양한 발달과정에 있는 대상자들과 치료적인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해내야만 한다[8]. 간호대학생들은 임상 실습을 시작하면서 간호사가 되기 전 부터 쉽지 않은 소통의 상황들을 경험해야 한다. 최근 들어 임상 현장의 의사소통 유형과 범위는 더욱 다양해졌으며, 성숙한 인간관계의 기초를 구축하는 사회적 발달 단계에 있는 간호대학생이 복잡한 임상 현장에서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해내기는 쉽지 않다[10]. 하지만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간호대학생은 공감 표현을 통한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의 형성이 어려우며,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과의 물리적 마찰로 임상현장에서 부적응을 겪게 된다[11]. 이러한 부적응은 간호인력 문제로 직결되므로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주요 역량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이란 본인 스스로에 대한 관념적 평가로[13], ‘자신을 인정하거나 불신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신뢰하고 여러 가지 일을 의욕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12].

성격은 ‘각 개인이 지닌 특유한 성질이나 품성’

으로, ‘주요한 삶의 문제들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다[13]. 따라서 성격은 개인의 의사소통능력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11].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는 타고난 성격의 경향성에 대한 지표로, 각 유형별로 장점과 단점,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11].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MBTI 성격유형을 확인하여, 각 성격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과 자아존중감을 파악한 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성격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또는 공감능력, 스트레스정도, 비판적사고를 파악하는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으나 이것이 MBTI 성격유형과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11][14-15].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별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고, 이 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하여, 급변하는 의료현장의 핵심인력인 간호사 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별 의사소통 능력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MBTI 성격유형, 의사소통 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유형별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광역시 소재한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으로,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대상자 크기는 G*Power 3.1.9.2 Program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상관분석을 위한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 .30, 유의수준 .05, 검정력 .90로 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112명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답변을 한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 123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MBTI 성격유형

MBTI 성격유형은 Briggs와 Myers가 개발한 성격유형검사(MBTI)를 Kim과 Shim[16]이 한국어판으로 표준화한 자기기입식 총 94문항의 Form G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MBTI는 양극을 이루는 네 가지 지표를 조합한 16가지의 성격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성격유형은 네 가지의 문자로 표시된다[17]. 네 쌍의 지표는 외향형(Extroversion)과 내향형(Introversion), 감각형(Sensing)과 직관형(iNtuition), 사고형(Thinking)과 감정형(Feeling) 그리고 판단형(Judgement)과 인식형(Perception)으로 구성된다. MBTI는 조합에 따라 심리기능(ST, SF, NF, NT), 심리기질(SJ, SP, NF, NT), 태도지표(EJ, EP, IJ, IP) 등으로 구성된다[18]. 심리기능이란 개인이 외부와 상호 작용하는데 있어서 그 개인의 고유한 반응양식을 가지게 하는 일관된 내적 심리 경향을 의미하며, 심리기질은 개인의 가시적인 여러 행동 속에 내재하는 패턴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또한 에너지 방향을 나타내는 외향(E)와 내향(I)와 외부세계에 대처하는 생활양식인 인식(J)와 판단(P)의

조합으로 태도를 분류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MBTI의 4가지 선호지표(EI, SN, TF, JP)와 태도지표(EJ, EP, IJ, IP)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11,17,18].

2.3.2 의사소통능력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Rubin 등[18]이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능력(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ICC)에 Hur[19]가 7가지 개념을 추가하여 수정 보완한 글로벌 인간관계 의사소통 능력(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GICC) 도구 1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 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 관리, 표현력, 지지력,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간파력, 반응력, 잠음통제력이라는 15가지 하부개념을 가지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ur[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2.3.3 자아존중감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Coopersmith(1976)가 제작한 Self-Esteem Inventory를 Kang[20]이 한국판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검사 도구는 총 25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이었으며[20],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2이었다.

2.3.4 학업성취도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는 2021년 1학기에 학기를 완수한 후 최종적으로 산출된 평균 평점(Grade Point Average, GPA)으로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재학 중인 대학의 평균 평점(GPA)은 4.5점 만점에 0.5점 단위로 구분되어 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는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총 2주 동안 수집하였다. MBTI를 이용한 성격유형 검사는 대상 대학의 학생상담센터에서 실시한 자료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의 결과만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설문지 배부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한 후 대상자들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설명 내용에는 본 연구로 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에 자유의사로 참여할 것,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MBTI 성격유형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설문지의 문항은 Cronbach's α로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 123명 중 여성 108명(87.8%), 남성 15명(12.2%)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20~29세가 110명(89.4%)으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 7명(5.7%), 40세 이상은

6명(4.9%)으로 확인되었다. MBTI 성격유형의 선호지표는 내향형(I)이 68명(55.3%), 감각형(S)이 68명(69.9%), 감정형(F)이 65명(52.8%), 판단형(J)이 66명(53.7%)로 높게 나타났다. MBTI의 성격유형을 살펴보면, ISFJ형이 17명(13.8%)로 가장 많았고, INTJ형이 1명(0.8%)으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심리기능유형은 ST형 44명(35.8%), SF형 42명(34.1%), NF형 23명(18.7%), NT형 14명(11.4%)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태도지표는 IJ형 39명(31.7%), IP형 29명(23.6%), EJ형 28명(22.8%), EP형 27명(22.0%) 순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ies	n(%) or Mean±SD	
Gender	Male	15(12.2)	
	Female	108(87.8)	
Age		26.13±8.5	
	20~29	110(89.4)	
	30~39	7(5.7)	
	over 40	6(4.9)	
Preference of MBTI	Energy direction	E	55(44.7)
		I	68(55.3)
	Perception function	S	68(69.9)
		N	37(30.1)
	Judgment function	T	58(47.2)
		F	65(52.8)
Behavior pattern	J	66(53.7)	
	P	57(46.3)	
Function of MBTI	ST	44(35.8)	
	SF	42(34.1)	
	NF	23(18.7)	
	NT	14(11.4)	
Attitude of MBTI	IJ	39(31.7)	
	IP	29(23.6)	
	EP	27(22.0)	
	EJ	28(22.8)	
Type of MBTI	ISFJ	17(13.8)	
	ESTJ	15(12.2)	
	ISTJ	14(11.4)	
	ISFP	11(8.9)	
	ESFP	8(6.5)	
	ISTP	8(6.5)	
	ENFP	7(5.7)	
	ESTP	7(5.7)	
	INFP	7(5.7)	
	ESFJ	6(4.9)	
	INFJ	6(4.9)	
	ENTP	5(4.1)	
	ENTJ	4(3.3)	
	INTP	4(3.3)	
ENFJ	3(2.4)		
INTJ	1(0.8)		

3.2 MBTI 성격유형별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별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는 [Table 2]와 같다. MBTI 선호지표에서 에너지 방향은 의사소통 유형($t=-4.238, p<.001$), 자아존중감($t=-4.267,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외향형(E)이 내향형(I)보다 높았다. 인식기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판단기능은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546, p=.012$), 논리형(T)이 감정형(F)보다 높았다. 행동양식은 학업성취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3.323, p=.001$), 인식형(P)이 판단형(J)보다 높았다.

MBTI 심리기능의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MBTI 태도 지표의 구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F=7.163, p<.001$), 자아존중감($F=6.316, p=.001$), 학업성취도($F=3.556, p=.01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2] Communication Ability, Self-esteem, Academic Achievement and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by MBTI

[표 2] MBTI 성격유형별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N=123)

Variables	Categories	Communication Ability		Self-esteem		Academic Achievement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Preference of MBTI	Energy direction	E	57.84±4.9	-4.238 (<.001)	76.60±11.2	-4.267 (<.001)	3.37±0.60	.987 (.326)
		I	54.18±4.6		68.94±8.71		3.48±0.59	
	Perception function	S	55.73±4.88	-.267 (.790)	72.59±9.73	.362 (.718)	3.49±0.53	1.378 (.174)
		N	56.00±5.59		71.84±12.44		3.31±0.71	
	Judgment function	T	56.47±5.30	1.350 (.180)	74.88±11.34	2.546 (.012)	3.45±0.62	.267 (.790)
		F	55.23±4.84		70.12±9.37		3.41±0.57	
	Behavior pattern	J	55.19±5.25	-1.261 (.210)	71.60±10.90	-.746 (.457)	3.25±0.56	-3.323 (.001)
		P	56.35±4.91		73.03±10.32		3.59±0.58	
Function of MBTI	NF	55.43±5.09	.668 (.573)	69.61±10.17	2.178 (.094)	3.31±0.69	.785 (.504)	
	NT	56.93±6.43		75.50±15.19		3.30±0.76		
	ST	55.12±4.76		70.40±9.02		3.48±0.49		
	SF	56.32±4.97		74.68±10.03		3.50±0.58		
Attitude of MBTI	IJ ^a	55.08±4.69	7.163 (<.001) b<c,d	69.85±8.43	6.316 (.001) a<d b<c,d	3.60±0.58	3.556 (.016) a<c	
	IP ^b	52.97±4.28		67.72±9.09		3.32±0.56		
	EP ^c	57.74±5.16		76.07±11.25		3.12±0.57		
	EJ ^d	57.93±4.82		77.11±11.32		3.56±0.59		

3.3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자아존중감($r=.262, p=.003$), 학업성취도($r=.515,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122, p=.178$).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표 3] 의사소통능력, 자존감 및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N=123)

Variables	Communication Ability r(p)	Self-esteem r(p)	Academic Achievement r(p)
Communication Ability	1		
Self-esteem	.262 (.003)	1	
Academic Achievement	.515 (<.001)	.122 (.178)	1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유형별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을 분석한 결과 ISFJ형이 13.8%로 가장 많았으며, INTJ형이 0.8%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Chae의 연구[11]에서 ESFJ형이 15.7%로 가장 높았으며, INTJ형과 ENTJ형은 확인되지 않았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였다.

또한 MBTI 성격유형의 선호지표는 에너지 방향에서 내향형(I)이 55.3%, 인식기능에서는 감각형(S)이 69.9%, 판단기능은 감정형(F)이 52.8%, 행동패턴에서는 판단형(J)이 53.7%로 높게 확인되었다. 이는 Park과 Kim[14]이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에너지 방향은 외향형(E)이 58.0%, 인식기능에서는 감각형(S)이 65.0%, 판단기능은 감정형(F)이 71.0%, 행동패턴에서는 판단형(J)이 55.5%로 높게 확인되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 방향에서 차이가 있는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 내향형(I)이 많이 나타난 것은 Park과 Kim[14]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COVID-19 팬데믹 이전에 수집된 자료이나,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이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로 사회적 활동의 위축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심리기능유형은 ST형 35.8%으로 가장 높게 많았으며, SF형 34.1%, NF형 18.7%, NT형 11.4%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 동정적, 우호적인 유형인 SF형이 간호 및 의료영역 종사자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하는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였다[21].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ST형은 사실적, 실질적인 유형으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지닌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태도지표는 IJ형 31.7%, IP형 23.6%, EJ형 22.8%, EP형 22.0% 순으로 확인되었다. 태도지표는 에너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외향(E)과 내향(I), 외부세계에 대처하는 생활양식을 의미하는 인식(J)과 판단(P)의 조합으로 구성된다[22].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IJ형은 결정지향적 내향형으로 내관적이고

인내하며, 의사가 확고하여 무엇을 쉽게 믿거나 변하지 않는 형을 의미한다[17]. 이는 MBTI 성격유형을 태도지표로 분석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어 비교는 어려우나 책임과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거에 기반하여 간호를 수행하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학의 특성상 간호사의 자질에 부합하는 유형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별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MBTI 선호지표에서 에너지 방향은 의사소통유형($t=-4.238$, $p<.001$), 자아존중감($t=-4.267$,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외향형(E)이 내향형(I)보다 높았다. 외향형(E)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활동에 참여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유형으로 이는 의사소통의 적극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판단될 수 있다[17]. 판단기능은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546$, $p=.012$), 논리형(T)이 감정형(F)보다 높았다. 행동양식은 학업성취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3.323$, $p=.001$), 인식형(P)이 판단형(J)보다 높았다. 이는 Jeong 외[23]의 연구에서 MBTI 선호지표와 학업성취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Jeong 외[23]의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는 1학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영어, 기본간호학, 기본간호학실습, 해부학 4개 과목을 선택하여 분석하여, 교과목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2학년 대상으로 한 학기 전 과목의 학점 평균으로 분석되었다.

MBTI 심리기능의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는데, 이는 Park과 Kim[14]의 연구에서 SF형과 NF형에서 의사소통유형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과 Chae[11]의 연구에서 NF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 본 연구는 2021년 COVID-19 팬데믹 이후 2학년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로 1년 이상 사회적 활동의 위축이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준 결과라고 사료된다. 또한 Chae[11]은 심리기능유형과 심리지질유형의 S와 N, T와 F, J와 P의 조합에서 어떤 한쪽으로 편중

된 점수를 가져 심리기능과 심리기질유형이 결정되어도 그러한 선호성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특성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떤 개인은 선호성을 잘 활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호도에 따른 특성발현에 차이가 나타나 본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MBTI 4가지 심리기능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에 차이가 없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MBTI 태도 지표의 구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F=7.163, p<.001$), 자아존중감($F=6.316, p=.001$), 학업성취도($F=3.556, p=.01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태도지표는 에너지 방향과 생활양식이 반영된 것이다[17]. 에너지 방향은 에너지 방향이 외부세계로 향하는 행동지향적인 외향형(E)과 에너지 방향이 내부세계로 향하는 관념적 사고를 선호하는 내향형(I)으로 구성되며, 생활양식은 계획대로 행동하는 판단형(J)와 순간의 필요에 따라 행동하는 인식형(P)으로 구성된다[17]. 따라서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외향형인 EJ형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존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자아존중감($r=.262, p=.003$), 학업성취도($r=.515,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의사소통의 하위영역인 타인관점의 이해 영역과 학업성취도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Lee 외[2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결과였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r=.122, p=.178$), 이는 Kim과 Lee[22]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일치된 결과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MBTI 성격유형을 확인하고, 성격유형별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을 분석한 결과 ISFJ형이 13.8%로 가장 많았으며, INTJ형이 0.8%로 가장 낮은 빈도다. MBTI 성격유형의 선

호지표는 에너지 방향에서 내향형(I)이 55.3%, 인식기능에서는 감각형(S)이 69.9%, 판단기능은 감정형(F)이 52.8%, 행동패턴에서는 판단형(J)이 53.7%로 높게 확인되었다. 심리기능유형은 ST형 35.8%로 가장 많았으며, NT형 11.4% 적었다. 태도지표는 IJ형이 31.7%로 가장 많았으며, EP형이 22.0%로 가장 적었다.

MBTI 선호지표에서 에너지 방향은 의사소통유형($t=-4.238, p<.001$), 자아존중감($t=-4.267,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외향형(E)이 내향형(I)보다 높았다. 판단기능은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546, p=.012$), 논리형(T)이 감정형(F)보다 높았다. 행동양식은 학업성취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3.323, p=.001$), 인식형(P)이 판단형(J)보다 높았다. MBTI 태도 지표의 구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F=7.163, p<.001$), 자아존중감($F=6.316, p=.001$), 학업성취도($F=3.556, p=.01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자아존중감($r=.262, p=.003$), 학업성취도($r=.515,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122, p=.178$).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 중 태도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간호학적인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별 의사소통 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고, 이 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하여, 급변하는 의료현장의 핵심인력인 간호사 양성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 중 태도지표를 가지고 분석한 첫 번째 연구로 태도지표를 분석하는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G시의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로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S-H. Oh, J-J. Sun and S-H. Jang,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 Global Competences and Their Multiple Intelligence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7, No.3, pp.13-26, 2017.
- [2] E-Y. Yoo,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Educational Needs about Corona19 Infection Contro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 12, pp. 335-341, 2020.
- [3] H-R. Nam, 'The Effects of Flipped Learning on the Self-Esteem,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Single Group before and after Design', *Nursing and Health Issue*, Vol.25, No.2, pp. 66-73, 2020.
- [4] K-S. Lee, 'Instructor's Involvement and Achievement on Learning Continuation Intention in Programming Learning A Case Study of Programming Classes for Non-Majors', *The Korea Society of Culture and Convergence*, Vol.43, No.5. pp 129-147, 2021.
- [5] J-I. Lee and J-H.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Essential Skill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1, No.2, pp. 227-246, 2012.
- [6] S-H. Hong, J-S. Kim and D-B. Ju, 'The Effect of Resilience o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1, No.9, pp. 443-450, 2020.
- [7] S-J. Han and H-W. Kim, 'The Relationship of the Subjective Happiness, Ego-resili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 Focusing on the Giver, Taker, Matche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4, pp. 461-467, 2018.
- [8] S-H. Kim and M-A. Lee,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Turnover Intention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0, No.3, pp. 332-341, 2014.
- [9] M. Canale and M. Swain,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Vol.1, No.1, pp. 1-47, 1980.
- [10] H-J. Won and S-H. Park, 'The Effect of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by Enneagram Personality Type', *Health & Welfare*, Vol.20, No.4, pp. 159-177, 2018.
- [11] M-O. Chae, 'Empathic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Personality Typ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4, pp. 303-311, 2016.
- [12] M-K. Jeon and M-S. Kim,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 Differentiation, Self Esteem, Life Stress in Nursing department student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1, No.4, pp. 293- 302, 2013.
- [13]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 [14] J-M. Park and J-H. Kim, 'Decision-Making Styl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25, No.1, pp. 37-46, 2021.
- [15] Y-R. Lee, S-H. Kim and M-S. Chu, 'Stress, Stress Coping, and School Adaptation according to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Personality Type in Freshmen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19, No.2, pp. 172-182, 2013.
- [16] J-T. Kim and H-S. Shim, 'A validity study on Korean version of the Myers Briggs Type Indicator (MBTI)',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3, pp. 44-72, 1990.
- [17] M-J. Kang and J-S. Park, 'A Study on the Relation among MBTI Personality Types, Job Satisfaction, Customer Orientation, and Willingness to Change job',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36, No.5,

- pp. 151–173, 2017.
- [18] R.B. Rubin, M. M. Martin, S. S. Bruning and D. E. Powe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development and test of a self-efficacy model',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1991.
- [19] G-H. Hu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47, No.6, pp. 380–408, 2003.
- [20] J-G. Kang, 'Effect of Self-Concept, Career Awareness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 on Job Aspiration Level',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6.
- [21] J-M. Park and H-K. Jung, 'Decision-Making Styl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25, No.1, pp.37–46, 2021.
- [22] S-H. Kim and S-H. Lee,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27, No.1, pp.63–72, 2015.
- [23] H-K. Jung, M-S. Kim, Y-J. Yoo, S-O. Kim and D-Y. W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3, No.4 pp.516–525, 2007.
- [24] H-J. Lee, S-K. Chung and M-J. Kim, 'The Effects of Healthcare Major Students' Educational Achievement on Life Competenc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School Health*, Vol.26, No.2, pp.62–71, 2013.